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국의 최근 대외개방정책 추진 동향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1. 배경
2.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과정
3. 최근 대외개방정책 동향
4. 평가 및 전망

## 주요 내용

- 2023년 7월 11일,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는 등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대외개방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의 견제 등으로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되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발표된 개방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어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수준 높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왔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40여년간 지속 성장하였으며, 2021년엔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함.
  - ‘중국식 현대화’는 국내경제 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상호 경제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며 개방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1995년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한 이후,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까지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최근의 대외개방정책은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발표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산업목록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년 대비 2개 항목을 축소하여 더 많은 분야를 외국기업에 개방하였음.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의 개방정책을 담고있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외자발전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누적 투자액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첨단 기술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
  - 2023년 발표된 <외국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외자유치에 관한 의견>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였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지지하고 있으며,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로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1. 배경

■ 2023년 7월 11일,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었음.<sup>1)</sup>

- 시진핑 주석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을 위해 개혁개방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강조함.
  -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을 촉진하여 새로운 발전국면을 모색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
  - 국제표준에 대한 제도적 개방을 중점으로 하여 투자, 무역, 금융 등 대외협력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의 견제 등으로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되면서 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개방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별 해외자본 유치경쟁 중에 대중국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음.
  - 특히 미국 제조업의 국내 회귀,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이슈 제기 등 중국의 개방정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보이는 정책을 제시함.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sup>2)</sup>

- 최근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통해서도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발표된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도 향후 5년 내에 대외개방 수준을 높여 신경제체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됨.
  - 2022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 정부는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무역과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고용 안정, 개발과 혁신을 필수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기조를 보임.
  - 외국기업 투자금지 목록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진적 축소하고 있으며, 최근 <14차 5개년 계획기간 외자발전 계획>, <외국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외자유치에 관한 의견>과 같은 주요 대외개방정책이 차례로 발표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sup>3)</sup> 이를 의식한 최근 대외개방정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二次会议强调：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推动能耗双控逐步转向碳排放双控」, 『新华社』(2023. 7. 11)

2) 「瞭望 |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网信中国』(2023. 5. 24)

3) 「China's Expanded Anti-Espionage Law Threatens Business Consultants and Advisers」, 『TIME』(2023. 7. 7)

## 2.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과정

-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함.
-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조 2,300억 위안(약 1,891억 달러)을 기록(표 1 참조)<sup>4)</sup>
  - 2021년 1.15조 위안으로 처음 1조위안을 넘어선 이후, 코로나19 봉쇄조치가 극심했던 2022년에도 전체 투자금액은 2021년 대비 성장세를 보임.
  - 반면 투자기업 수는 2021년 대비 19.2% 감소하였고, 부동산 업계는 기업 수, 투자금액 모두 각각 전년대비 -48.4%, -41.8%를 기록하였음.
  - 제조업의 경우 기업 수는 2021년 대비 14.5%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은 46.1% 증가하여 산업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2022년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산업 구분	기업 수 기준		투자 규모 기준	
	신규 기업 수 (개)	전년대비증감 (%)	투자액 (억 위안)	전년대비증감 (%)
총 계	38,497	-19.2	12,327	6.3
제조업	3,570	-14.5	3,237	46.1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7,473	-19.6	2,148	-2.1
부동산업	581	-48.4	914	-41.8
정보통신, 컴퓨터서비스업	3,059	-24.5	1,548	15.1
도소매업	10,894	-18.6	961	-12.5

자료: 国家统计局 (2022)

- 난카이대학 등지아둥 교수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sup>5)</sup>
- ‘중국식 현대화’는 국내경제 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상호 경제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며

4) 「中华人民共和国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国家统计局』(2023. 2. 28)

5) 「会员观点 | 【修家栋】中国式现代化中的对外开放理念和格局」, 『中国世界经济学会』(2023. 9. 20)

- 개방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개방은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국내 개방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음.
    - 2013년 상하이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한 이래 현재 21개의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설립되었으며,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우선 시행된 개방형 정책은 향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면서 개방을 촉진하는 시험무대 역할을 함.
  - 국제수준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수용하여 ‘제도적 개방’을 점진적으로 행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모해왔음.
    - 향후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 등 신흥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수준의 제도적 규범을 도입해야 함.
  - 중국 내 개방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대외협력력을 통해 지역경제통합과 국제경제협력력을 강화함.
    -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2021년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등을 통해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가와 경제협력력을 달성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큰 성과를 보였음.
    - 2023년 1월 현재 151개 국가, 32개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200개 이상의 협정문이 체결되었음.
    -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경제협력력을 실현할 수 있음.

표 2. 중국의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연도	법안 명칭	주요 내용
1995년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상투자 방향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	최초로 외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발표함
1998년	〈대외개방 및 외자수준 향상을 위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进一步扩大对外开放, 提高利用外资水平的若干意见)〉	외자기업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함
1999년	〈외상투자 개선에 대한 의견(关于当前进一步鼓励外商投资的意见)〉	외자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서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대외개방을 늘리고, 외국기업의 권익보호, 외상투자 촉진 지원
2022년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판),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외국기업 투자금지산업을 전년도 33개에서 27개로 축소
2023년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2年版))〉	외국기업 투자장려 산업목록을 전년대비 239개 증가

자료: 北京德恒律师事务所 (2023. 8. 18)

■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외개방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관련 정책이 꾸준히 발표됨(표 2 참조).

- 중국 정부는 1995년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sup>6)</sup>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권장, 제한, 금지하는 산업들로 구분하여 공표하였음.
  - 이후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등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왔음.
  - 총 10차 개정을 마친 후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대체됨.
-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본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경기업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음.
  - 3가지 법률로 관리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새로이 통합된 법률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더욱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함.
  - <외상투자법> 적용 후 가장 큰 변화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 법인 설립하기 이전부터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인설립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음.

■ 2023년 7월 11일 발표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문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공산당 중앙문헌연구소 왕더룽 박사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가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강조하면서 3가지 중요한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sup>7)</sup>
  - 무역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의 발전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상품무역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 제도적으로 더욱 개방해야하며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함.
  -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의 개방 정도를 심화하여 대외개방의 중요한 관문으로 활용해야 함.
- 타오촨 동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개방 2.0’으로 표현하였음.<sup>8)</sup>
  - 개방 1.0은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 이후인 2023년 상반기, 개방 2.0은 2023년 7월 이후 하반기를 의미
  - 2022년 12월 7일, 국무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된 <신 10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기조가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두드러짐.
  - 개방 1.0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자유입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자 감소세를 보였음.
  - 개방 2.0은 경기 하강국면이 예상되는 중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 등으로 외자 유입이

6)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深度解读 | 威科先行」, 『北京德恒律师事务所』(2023. 8. 18)

7) 「瞭望 |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网信中国』(2023. 5. 24)

8) 「经济“放开2.0”, 这次有何不同?」, 『川阅全球宏观』(2023. 8. 6)

지속되고 있음.

-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임.

### 3. 최근 대외개방정책 동향

#### 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2021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를 발표<sup>9)</sup>

-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 범위와 자유무역시험구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각각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는 매년 산업목록을 조정해 왔지만 2022년엔 개정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올해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판이 여전히 시행 중에 있음.
- 전국 범위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매년 감소하여 2017년 63개 분야에서 2021년 31개로 4년간 절반 이상이 감소(표 3 참고)
- 중국은행 하이난금융연구소 리젠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점진적인 축소는 중국의 시장개방성을 높여 더 많은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함.<sup>10)</sup>

표 3.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정책 변화 추이

연도	세부 구분	비고
2019년	- 네거티브 리스트 40개	
2020년	- 네거티브 리스트 33개	- 2019년 대비 6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2개 조항은 1개 항목으로 통합
2021년	- 네거티브 리스트 31개	- 2020년 대비 “전용차량, 신에너지, 상용차 이외의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중국 주주의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삭제 - 2020년 대비 “위성TV 수신시설 및 관련 핵심 부품 생산 금지” 조항 삭제

주: 발표된 조치는 다음 연도부터 적용됨. 2021년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자료: 연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发展改革委, 商务部』(2021. 11. 27)

10) 「2021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再缩减 扩大高水平对外开放 推动经济高质量发展」, 『中国经济网』(2021. 12. 30)

- 2022년부터 적용된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전년대비 2개 항목이 축소된 3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sup>11)</sup>
- 자동차 부문의 개방이 가장 특징적인데, 신에너지 자동차(2018년), 상용차(2020년)에 이어 이번에 승용차 부문에서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됨.
- 이번 조치로 외국계 자동차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음.<sup>12)</sup>

## 나. 14차 5개년 계획 외자발전 계획

■ 2021년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강조하며 이를 국내 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sup>13)</sup>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기술력 향상과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
- 첨단제조분야의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하게 되는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서비스 분야(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대외개방도를 높여서 내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2021년 10월 29일 상무부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외자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5년간의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sup>14)</sup>

- 2025년까지 누적 투자액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함.
- 2025년까지 첨단기술 분야의 비중은 30%까지 확대(2020년 29.6%)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비중도 19%로 제고(2020년 17.9%)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향후 5년간 달성할 주요 목표로 ▲외상투자 진입범위 확대 ▲외상투자 산업구조 개선 ▲자유무역역구 등 개방플랫폼 수준 향상 ▲외상투자 관리 선진화 ▲외상투자 환경 개선 등을 명시
- 외상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첨단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할 것을 명시함.

11)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发展改革委, 商务部』(2021. 11. 27)

12) 「负面清单连续第五年缩减, 我国对外资准入进一步放宽」, 『第一财经』(2021. 12. 28)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年规划2035年远景目标纲要」, 『国务院』(2021.3)

14) 「“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商务部』(2021. 10. 29)

- 친환경·첨단기술서비스업 분야의 투자를 우대하는 등 외자유입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지역적으로 대외개방시범구를 적극 활용하고 중서부 균형발전도 외자유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개발구 등에서 환경을 개선하여 외자유치의 주요 통로로 활용할 계획임.
- 외국기업의 중서부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내륙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함.

## 다.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정책

■ 2023년 8월 13일, 국무원은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책을 마련함<sup>15)16)</sup>

- 이번 문건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총 6개 항목과 24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외자유치 ▲외자기업 차별금지 ▲외상투자 보호 ▲외자운용 편의 증대 ▲세제지원 혜택 ▲외상투자 촉진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방위적인 투자지원정책을 서술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14차 5개년 계획기간 외자발전 계획>에서 언급한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였음.

■ [높은 수준의 외자유치]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수준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의 지식이전효과,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함.

- 다양한 형태의 외국법인이 중국 내 투자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함.
-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지역본부 등도 중국 내 투자 시 외자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누릴 수 있음.
- QFLP 제도<sup>17)</sup> 시범구를 지정하여 건전한 외환관리 편리화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위안화 자산의 국내투자를 지원
-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함.
-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첨단 연구개발 등 수준 높은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적극 지원함.
-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중국 내에 R&D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신약의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

15)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中国政府网』(2023. 8. 13)

16)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深度解读 | 威科先行」, 『北京德恒律师事务所』(2023. 8. 18)

17) QFLP는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적격 외국 유한파트너)의 약자로, 중국 정부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 인정받은 외국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 기업간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 내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가 가능함.

-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국내 직업대학 및 훈련기관과 함께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국내 우수인력 양성과 같은 중국 내 지식이전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 서비스업 개방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국내 서비스업 수준 향상을 기대함.
- 국제적 수준의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도록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함.
- 금융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주식, 실물 자산을 이용한 담보금융업을 활발히 하도록 장려함.
- 국내 가상인터넷망 사업(외국인 지분 50% 이하), 정보서비스업(온라인출판 제외),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 등 통신사업 개방 시범분야를 늘려 비금융분야 서비스업의 개방도 확대함.
- 외국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을 적극 장려하여 중국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 신구, 국가개발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개발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동부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장려함.

■ [외자기업 차별금지 및 보호] 외국기업은 중국 내 투자시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대우 받지 않아야 하고, 권익을 보호받음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기업이 중국 내 활동 시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고 있음.
- 외자기업도 정부조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관련 부서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지방정부가 산업발전과 내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국가안보 관련 이외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원정책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 없음.
- 외자기업은 법에 따라 동등한 입장에서 중국 내 상품 표준화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표준화 제정과과정에서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이 동등하게 표준화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도록 보장함.
- 외자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성(省)정부 단위에서 외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를 만들고, 각종 음해로부터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함.
- 인터넷 허위정보로 외국인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성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지역별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 신청을 접수하며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
-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지역간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함.

■ [외자유용 편의 증대] 외국기업의 인력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

- 출입국 조치를 개선하여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의 영주권 신청을 간소화하였으며, 동반 가족 출입국의 편리화도 제고함.
-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보안을 편리화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증대
  -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은 그린채널을 구축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함.
  - 베이징, 상하이, 광둥, 텐진에서 데이터유출 안전성 평가, 개인정보 표준화 등을 시범운영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국경간 데이터 이동 서비스에 편의를 제공함.
-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사법적 부담을 줄이려 노력함.
  -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단속실시를 줄이고, 안전검사·제품품질검사 등에 대해서도 횡수를 줄이고 한번에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함.
  - 외자기업과의 전체회의제도를 운영하고 핵심 실무그룹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 [세제지원 혜택]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각종 분야에서도 편의를 제공하여 국내 재투자자를 유도함.

- 외자기업을 위한 재정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 재투자자를 장려함.
  - 중앙대외경제발전 특별기금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프로젝트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함.
  - 국내 재투자시 원천징수세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에서 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 중국 내 거주 중인 외국인력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투자환경을 개선함.
  - 외국인이 받는 주택보조금, 어학연수비, 자녀교육비 등 수당에서 우대정책을 누리도록 지원 제공
  - 외국인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국산장비 조달 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누리도록 안내함.

■ [외상투자 촉진] 외국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국 투자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

- 외국인투자 장려목록의 산업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책이 마련됨.
  - 외국기업의 첨단장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중국 내 투자 시 지원을 확대함.
- 중국내 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부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중국내 위치한 대사관 및 영사관과 주요 기업에 대중국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기업인의 중국초청도 지원하는 등 대외홍보도 강화함.
- 지역별로 외국인투자유치 부서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홍보 인력을 강화함.

■ 인적교류를 통한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입국절차 간소화 정책도 차례로 시행되고 있음.<sup>18)</sup>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왔으며, 올해부터 입국절차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코로나19 개방 이후인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자 수는 843.8만명으로 2019년 상반기의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국인의 관광목적 입국은 2019년 상반기 379만명에서 2023년 상반기 5.2만명으로 1.3%에 그쳤음.
-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초 리오프닝 이후, 관광비자 재개(3월 15일), APEC카드 소지자 입국(5월 1일) 등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 시작함.
- 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싱가포르·브루나이 단기방문 비자면제 재개(7월 26일), 일부 입국자 지문채취 면제(8월 중순) 등 입국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음.

## 4. 평가 및 전망

■ 중국 내 전문가들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웨이지강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연구원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에 대해 '개방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평가함.<sup>19)</sup>
- '개방형 경제 신체제는 현대적 농업, 첨단 제조업, 의료, 교육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개방을 통해 산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함.
- 외자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으로 생산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개방을 통해서 산업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지역별 산업발전 불균형을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서 경제수준 향상과 고품질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
- 개방수준의 제고는 교역효율 향상, 디지털무역·서비스무역을 강화하여 무역강국으로의 성장을 촉진
- 궁극적으로 금융분야의 개방까지 이루어서 자본이동이 활발한 금융 생태계의 선진화를 이룰 것을 제

18) 「中国外交部:为畅通中外人员往来提供更多便利」, 『中国驻韩国大使馆』(2023. 9. 8)

19)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新华网』(2023. 8. 11)

안

- 상하이재경대학 중국식현대화연구소 덩샤오친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판단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함을 강조<sup>20)</sup>
- 2022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0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6년 연속 세계최대 상품 무역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4년 연속 1위를 달성함.
-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전지 등 새로운 3대 품목의 수출이 급성장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였음.
- 하지만 대외환경의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로 대외개방 수준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함.
- 단순히 상품 무역을 넘어서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로 대외개방을 확대해야하며, 그 중 수준 높은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투자환경 개선, 유통망 확충 등 국내 문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중국경제 성장세 감소로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기술자립이 절실한 가운데 내수시장을 강점으로 외자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이 외자유치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KIEP**

20)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中国共产党新闻网』(2023. 8. 16)

## [참고자료]

### 1. 중문 참고자료

- 「“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2021. 『商务部』(10. 29).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2021. 『发展改革委 商务部』(11. 27).
-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2021. 『发展改革委, 商务部』(11. 27).
- 「负面清单连续第五年缩减,我国对外资准入进一步放宽」. 2021. 『第一财经』(12. 28).
- 「2021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再缩减 扩大高水平对外开放 推动经济高质量发展」. 2021. 『中国经济网』(12. 30).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年规划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国务院』.
- 「中华人民共和国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23. 『国家统计局』(2. 28).
- 「瞭望 |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2023. 『网信中国』(5. 24).
-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二次会议强调: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推动能耗双控逐步转向碳排放双控」. 2023. 『新华社』(7. 11).
- 「全力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2023. 『中国经济时报』(7. 13).
-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2023. 『新华网』(8. 11).
-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2023. 『中国政府网』(8. 13).
- 「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2023. 『中国共产党新闻网』(8. 16).
-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深度解读 | 威科先行」. 2023. 『北京德恒律师事务所』(8. 18).
- 「经济“放开2.0”,这次有何不同?」. 2023. 『川阅全球宏观』(8. 6).
- 「中国外交部:为畅通中外人员往来提供更多便利」. 2023. 『中国驻韩国大使馆』(9. 8).
- 「会员观点 | 【佟家栋】中国式现代化中的对外开放理念和格局」. 2023. 『中国世界经济学会』(9. 20)

### 2. 영문 참고자료

- 「China's Expanded Anti-Espionage Law Threatens Business Consultants and Advisers」. 2023. 『TIME』(7. 7).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박사후과정 김동현  
(brenzel@naver.com)